



나들이 나온 노루가족 8일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이제 갓 태어난 새끼노루가 어미와 함께 모여 나들이 나온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수도권기업 제주유치 한계

최근 2년 투자촉진보조금 2개사·22억원 그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기업 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강화해 기업 유치가 난항에 예상되고 있다.

8일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개사·22억원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자사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투자에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 전국 혁신도시에 수도권 기업 17개사가 이전했으나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은 전무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광주·전남은 9개사, 경북 3개사, 경남 3개사, 부산 1개사, 강원도는 1개사

작년 상반기 전국혁신도시 17개사 이전... 제주는 전무

정부, 보조금지원기준 강화 기업유치 더욱 힘들어질듯

를 혁신도시에 유치했다.

특히 기업이전과 별개로 지난해 혁신도시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실적을 보면 전국 지자체는 혁신도시내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방문과 간담회 실시,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제주도는 단 한 건의 추진 실적을 내지 못했다.

이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기업 입주율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정 자금 지원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업 유치가 더 힘들어 지게 됐다.

개정을 보면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진출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이전에는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시 업종을 변경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투자기업의 선행 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한 산업단지 입주 업체 관계자는 "제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보고 내려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제주 이전 기업들의 업종 변경을 규제하는 것은 제주이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인차료나 부지매입시 이차비용 확대 지원 등 제주이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더 많은 기업들이 제주로 내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차고지증명제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

제주도, 차고지 미확보시 과태료 부과 방침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오는 1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이후부터 차고지확보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과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도는 이와 관련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홍보리플릿·전단지 12만부를 제작해 제주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6개소와 서귀포시 전 세대(8만 3856세대), 24개 자동차 판매영업소 등에 배부하는 등 도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2차 차고지확보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20% 감경 과태료 부과) 기간을 거쳐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인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 된다. 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된다.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후 첫 과태료 부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올해 10월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은 적극 해소하고, 주차장 확충·자기차고지 갖기 확대 등 주차면수 확대도 병행해 도민이 행복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제주도 동지역 대형차량에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이후 2017년 제주도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 전역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 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도, 삼양동선사유적지 등 대상

제주지역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

람에게 배려하고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주도는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접근성 향상, 안전과 편의성 확보 등 생활환경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사업으로 삼양동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소압기념관, 탐동 광

장 등 3개소를 선정하고 3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조사와 부서 협의를 통해 지난 2월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실시계획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BF 예비 인증 등을 거쳐서 이달 착공과 함께 본격화되며, 8월초에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탐동 제2공원 화장실, 탐동 해변공연장, 화북 제1·2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 내일부터 비날씨... 장마철 시작

가장 빠른 장맛비 예상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지역이 오는 10일부터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부터 제주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

해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다 18일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9일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기상청의 예상대로 10일부터 제주가 장마철에 접어들면 2011년과 동일한 가장 빠른 장맛비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지역별로 가장 빨리 장

마철이 시작됐던 때는 증부는 6월 15일(1984년), 남부는 6월 10일(2011년), 제주는 6월 10일(2011년)이다.

한편 이번 주 낮 최고기온은 26~27°C가량 예상된다. 또 9일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14m 강하게 불고, 물결도 2~3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JDC 제주도내

중소기업대상 수출상담회

참여기업모집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글로벌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JDC 제주도내 중소기업 대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적

- 제주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수출마케팅 역량강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을 통해 수출상담 및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을 도모하여 도내 수출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촉진

행사 개요

- 일시 / 장소 : 20. 9. 8.(화) 9:30 ~ 18:00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 ※ 상세 장소는 확정 참여 기업에게 개별 안내하며,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화상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주최/주관 : JDC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참여기업 : 도내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 대상업종 : 화장품, 식품분야
- 초청대상 : 해외바이어 8개사 내외(동남아시아, 중화권)

참가 신청 안내

- 모집대상 : 제주도내 화장품, 식품 분야 중소기업 중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대상 비즈니스 통역 제공 (바이어 국가 별 통역원 배정, 현지어 커뮤니케이션)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grace.kim@koreabridging.com)
- 신청기간 : 2020. 05. 27 ~ 2020. 06. 12
- 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MS Word 또는 한글 원본파일, 제품 및 로고 ai 파일 제출)
 - 국문, 영문 카탈로그 및 홍보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법인)정보 제공 및 이동통신서

참가업체 선정

- 업체선정 및 발표 : 6월 중순 이후
- 신청 기업 중 해외 바이어의 매칭 희망 기업에 한하여 개별 선정통보 예정
- ※ 신청을 하더라도 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JDC 면세점 임업업체 우대

문의처

- 참가신청 관련 : ㈜브릿징그로브코리아 김현지 매니저 02-555-8897(내선번호: 1006)
- 행사진행 관련 : JDC 미래사업처 김경은 대리 064-797-5688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윤재민 차장 064-757-2811